

쓰시마에서 중심지 이동과 그 원인

조성욱*

Movement and Cause of Central Place in Tsushima

Sungwook Cho*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쓰시마(對馬島)에 중앙의 관리가 파견되기 시작한 667년부터 변주가 폐지된 1869년까지 쓰시마에서 나타난 중심지 이동을 3기(1기 : 667년~1408년, 2기 : 1408년~1468년, 3기 : 1468년~1869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1기 중 667년부터 1245년까지 쓰시마의 중심지는 게치(鷓知)와 이즈하라(嚴原)로 추정된다. 1245년 소(宗)씨가 지배세력이 된 이후 쓰시마의 중심지는 이즈하라(嚴原, 1245~1349), 니이(仁位, 1349~1398), 시타카(志多賀, 1398~1408)로 이동했다. 둘째, 2기인 사카(佐賀) 시기(1408~1468)에는 1419년 이종무의 정벌이 있기도 했지만, 사카는 이즈하라 보다 북쪽에 위치해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선과의 교류가 편리한 지점이었다. 셋째, 3기인 이즈하라(嚴原) 시기(1468~1869)에는 주군이었던 쇼니(小貳)와의 관계가 청산되었고(1477), 1588년에는 막부의 번주로 편입되었으며, 임진왜란에 참여했다. 이즈하라(嚴原) 내부에서는 701년부터 857년 사이에는 도분사(島分寺) 지역이 중심지였으나, 1468년 이즈하라로 재이동한 이후 나카무라(中村) → 이케노지(池の地) → 가네이시(金石) → 사지키하라(棧原)로 이즈하라 시내에서의 중심지 이동이 있었다. 쓰시마에서 중심지 역할을 했던 주요 지역은 게치, 니이, 사카, 이즈하라였는데, 이 중 이즈하라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쓰시마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중심지 이동의 원인은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의 집무소 위치, 쓰시마 내부의 지배세력 변화, 일본 본토의 정권 교체, 규슈의 주군과의 관계에 있었다.

주요어 : 중심지 이동, 이동의 원인, 쓰시마, 게치, 니이, 사카, 이즈하라, 소(宗)씨

Abstract : This study looks into the movement of central place in Tsushima by dividing into three periods, since dispatching the central managers in 667.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Gechi (鷓知) and Izuvara (嚴原) were estimated as the central place from 667 to 1245. So (宗) family had been the dominant force since 1245, there was the movement of central place which is Izuvara (嚴原, 1245~1349), Nii (仁位, 1349~1398), Shitaka (志多賀, 1398~1408). Second, Saka (佐賀) period (1408~1468), there were the conquest by Lee Jongmu (Chosun) in 1419, but Saka was more convenient region for exchanges with Chosun because it was located in the northern than Izuvara. Third, Izuvara (嚴原) period (1468~1869), So (宗) family had been broken relationship with Shoni (小貳) (1477) and had been incorporated into the Feudal lord (1588) and took part in Japanese invasion war to Chosun. There was the movement of the central place in Izuvara inner region. Dobunsha (島分寺) was central place from 701 to 857, and after being relocated in 1468, there was movement of the central place from Naga-mura (中村), via Ikeno-chi (池の地), and Kane-ishi (金石), and finally into Sajiki-hara (棧原). The major regions as central place in Tsushima were Gechi, Nii, Shitaka, Saka, and Izuvara. Especially, Izuvara is the central place in Tsushima during the longest period. The causes of central place movement were the location of administration office on central dispatch, internal dominant force changes in Tsushima, the regime changes of mainland Japan, and relationship with lord of Kyushu.

Key Words : Central place movement, Cause of movement, Tsushima, Gechi, Nii, Saka, Izuvara, So family

*전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ssw@jbnu.ac.kr)

I. 서론

하나의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중심지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력이 집중되는 장소이다. 따라서 중심지의 이동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당시 지배세력이나 사회적인 변화가 지리적으로 표현된 지리적 현상이다. 즉, 중심지 이동은 지역의 사회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조성욱, 2006). 쓰시마(對馬島)의 경우 국가 단위는 아니지만 섬 내에서 여러 차례의 중심지 이동이 있었고, 이러한 중심지 이동은 쓰시마 내부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쓰시마는 한국과 일본의 가교 역할을 하는 지리적 위치 특성 때문에, 그동안 역사적 측면, 문화적 측면, 지리적 측면, 그리고 해양의 쓰시마 해류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이루어진 역사적 측면에 관한 연구들은 백제시대(이병선, 2000)와 고려시대(이영, 2008)의 연구는 비교적 소수인데 비하여, 조선시대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한문중, 2011; 민덕기, 2011; 홍성덕, 2011; 주노중, 2014). 주로 한일의 교류사에서 쓰시마의 역할에 관한 연구들이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대마도의 천도신앙에 대한 연구(임동권, 1988; 노성환, 2002), 불상에 대한 연구(정영호, 1990), 민속 비교(박계홍, 1975; Toshio Yasutomi, 1993), 음식문화 비교(김상보, 1999), 대마도의 인물연구(허지은, 2011; 田阪正則, 2012), 대마도 종가문서 분석(이재훈, 2009), 관광관련 연구(정선자, 2012) 등이 있다. 그리고 쓰시마 해류와 어장 관련 연구는 주로 한국수산과학회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지리학에서는 해동제국기의 연구(이찬, 1992), 대마도의 문화경관(김일립, 2003), 아리랑 축제를 사례로 대마도의 지역 활성화 전략(신영근, 2008), 조선시대 지도에 표현된 대마도 인식 변천(오상학, 2009), 관광자원으로서 대마도의 지질과 지형경관(권동희, 2015) 등의 연구가 있다.

쓰시마는 663년 백촌강 전투 이 후 667년 가네다(金田)성의 축조와 함께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는 중앙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永留久惠, 2014, 1권:241). 9세기 이후에는 아비류(阿比留) 집안에 의해 지배되다가, 1245년 소(宗)씨 집안이 아비류 집안을 토벌하고 지배권을 가지게 되었다(이훈, 2005:44). 이러한 지배세력의 변화와 함께 중심지의 변화도 나타나는데, 쓰시마에서 중심지는 시기에 따라 게치(鷄知), 이즈하라(嚴原), 니이

(仁位), 사카(佐賀) 그리고 이즈하라(嚴原)로 이동해 왔다. 특히 1468년 다시 이즈하라로 이동한 후에도 이즈하라 내에서 4차례의 이동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쓰시마 내에서의 중심지 이동 현황과 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쓰시마에서의 중심지 이동은 쓰시마의 특수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한반도와 일본 본토와의 관계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의미를 지닌다. 쓰시마에서의 중심지 이동은 쓰시마 내부에 원인이 있는 경우, 한반도와의 관계에 원인이 있는 경우, 일본 본토와의 관계에 원인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3가지 측면에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쓰시마의 지리적 특성을 살펴보고, 쓰시마의 역사와 함께 중심지 변화의 시기를 667년부터 1408년까지의 사카 이전 시기와 1408년부터 1468년까지의 사카 시기, 그리고 1468년부터 1869년까지의 이즈하라 시기 등 3개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중심지 이동 특성과 시대적 상황을 살펴본다.

II. 쓰시마의 지리적 특성

쓰시마는 한국과 일본의 중간 지점인 동경 129° 10'~129° 30'과 북위 34° 05'~34° 42' 사이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상 나가사키(長崎) 현에 속한다. 부산에서는 약 49.5km, 일본 내에서 가장 가까운 섬인 나가사키현의 이키(壹岐) 섬과는 약 47.5km 거리에 위치한다. 쓰시마는 나가사키시(약 190km)보다 후쿠오카(福岡)시(약 138km)가 더 가깝고 역사적으로나 경제·문화적으로 후쿠오카와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그림 1).

쓰시마의 면적은 708.66km²로 일본 내에서는 니이가타현(新潟縣)의 사도가시마(佐渡島), 가고시마현(鹿児島縣)의 야마미오시마(奄美大島)에 이어 3번째로 큰 섬이고, 쓰시마 섬이 속한 나가사키현 전체 면적의 약 17.3%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제주도 면적의 약 40%, 거제도 면적의 2배에 해당한다.

쓰시마는 지형적으로 남북 약 82km, 동서 약 18km로 남북으로 가늘고 긴 모양의 섬으로, 동북방향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으며,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이루어져 해안선의 연장길이가 약 915km에 달한다. 섬 면적의 89%가 산림이며, 농경지는 3.4%에 불과하다. 주요 산업은 어업, 관광업, 그리고 임업과 표고버섯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섬 외에 107개의 섬이 있으며 그 중 5개 섬



그림 1. 쓰시마 섬의 위치

이 유인도이다. 본섬은 원래 하나의 섬이었으나 1672년 운하인 오후나코시(大船越)의 건설로 인공적으로 두 개의 섬으로 나뉘었고, 현재는 1900년에 건설된 운하와 이곳에 건설된 교량인 만제키세토(萬閑橋)로 연결되어 있다.

쓰시마의 하천은 대부분 동서로 흐르며, 약 15km 미만의 짧은 하천이 대부분이다(표 1). 그리고 주요 산지는 남북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동쪽에 치우쳐 있으며, 남쪽에는 500m급의 높은 산지가 위치하고, 북부에는 300m급의 산지가 분포하며, 중간의 아소만 부근에는

200m이하의 산지가 분포한다(표 2).

쓰시마 섬은 남북(북동 방면에서 남서 방면으로)으로 길게 뻗어 있으나, 중간 지점인 아소만 부근에서는 약 1km 이내의 폭으로 동해안과 서해안이 분리되어 있다. 과거에는 선박의 이동을 위하여 오후나코시(小船越)에서 배를 육지로 끌어 올려 동해로 이동하여 운항하였다. 그러나 1672년에 오후나코시(大船越)라는 운하를 만들어 아소만과 동해안의 연결을 가능하게 했고, 1900년 일본제국의 해군이 러일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소만(浅茅湾)에 있는 군함을 쓰시마 동쪽 해상으로 빨리 이동시키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제키세토(萬閑瀬戸)라는 더 큰 운하를 건설했다. 현재 만제키세토는 쓰시마 섬을 위 아래로 나누는 경계가 되고 있으며, 섬의 북부를 가미시마(上島), 남부를 시모시마(下島)라고 부른다.

쓰시마가 기록상에 처음 등장한 것은 삼국지 위서 왜인전의 대마국(對馬國)이다. 일본에서는 쓰시마(津島)라고도 쓰였지만, 701년 율령제의 지역구분에서 쓰시마(対馬)로 정해졌다. 쓰시마시는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 섬 및 부속 도서로 구성된 행정구역이다. 2004년 3월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쓰시마섬 전체가 쓰시마시(対馬市)에 속하게 되었는데, 내부적으로는 6개의 마치(町)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

2010년 국세 조사에서 쓰시마시의 총인구는 34,407명이었다(표 3). 2005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4,074명(10.6%)이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인구 감소는 1960년 이래 지속되고 있다. 고령화 비율(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하는

표 1. 쓰시마의 주요 하천

(단위: km)

하천명	사코가와 (佐護川)	니타가와 (仁田川)	사스가와 (佐須川)	아레가와 (阿連川)	스모가와 (洲藻川)	세가와 (瀬川)	게치가와 (鷄知川)
유로연장	14.7	14.2	13.6	11.0	9.5	8.7	7.3
소재지	上県町	上県町	厳原町	厳原町	美津島町	厳原町	美津島町

자료 : 쓰시마시 홈페이지.

표 2. 쓰시마의 주요 산

(단위: m)

산명	야타테산 (矢立山)	오토리게산 (大鳥毛山)	다테라산 (龍良山)	아리아케산 (有明山)	시라다케 (白嶽)	미타케 (御嶽)
해발고도	648.5	561.0	558.5	558.2	515.3	479.0
소재지	厳原町	厳原町	厳原町	厳原町	美津島町	上県町

자료 : 쓰시마시 홈페이지.



그림 2. 쓰시마시의 행정구역

비율)은 29.5%로, 나가사키현 평균 26.0%, 일본 전국 평균 23.0%와 비교해 볼 때,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교육시설로는 소학교 20개, 중학교 12개, 소중병설 1개, 고교 3개가 있다.

쓰시마는 섬이기 때문에 외부와의 연결은 비행기와 선박으로 이루어지는데, 쓰시마 공항은 1975년에 건설되었으며, 후쿠오카 공항(1일 4회) 및 나가사키 공항(1일 4회)과 연결된다. 그리고 항구는 남쪽의 이즈하라(厳原)항(후쿠오카 1일 4회; 부산 1일 1회)과 북쪽의 히타카쓰(比田勝)항(후쿠오카 1일 1회; 부산 1일 2회) 두 곳에서 국제선과 국내선이 운항된다. 섬 내에서는 이즈하라항과 히타카쓰항을 연결하는 해운 노선이 있다. 그리고 내륙 교통은 국도 382호선이 남북을 연결하고 있으며, 남부의 이즈하라와 북부의 히타카쓰를 잇는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III. 쓰시마에서의 중심지 이동

1. 쓰시마의 역사와 주요 사건

1) 쓰시마의 지배 세력 변화

쓰시마에서는 약 8,000년 전 죠훈(繩文, 구석기 시대) 시대의 용기문 토기와 3~4세기경 야요이(彌生, 신석기 시대) 시대의 무늬없는 토기가 출토되었다. 또한 삼국지의 위서 왜인전에는 1,000여호의 주민이 살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이훈, 2005:34).

쓰시마가 일본의 중앙 정부와 관계가 밀접하게 된 것은 663년 백제부흥군의 요청에 의해 왜군 27,000명을 출병시켰으나, 백촌강(白村江) 전투에서 패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후 신라와 당의 침입에 대한 위기감으로 쓰시마에 군을 배치하고 봉화대를 설치하였으며, 667년에는 아소만 남부에 백제식 산성인 가네다성(金田城, 현재 美津島町)을 축성했다(표 4).

701년에 올령이 제정되면서 쓰시마는 대마국(對馬國)에서 대마도(對馬島)로 격하되었다. 이 후 쓰시마는 규슈의 다이자후(大宰府, 현재의 후쿠오카 부근)¹⁾와 신라의 교역에서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한반도와의 최전방으로 호국신사(護國神社)인 와타즈미신사(和多都美神社), 스미요시 신사(住吉神社), 가이진신사(海神神社) 등을 두었다(이훈, 2005:38).

쓰시마의 각 포구에는 토호들이 살았으며, 9세기 후반 재청관인(在廳官人)으로 아비류(阿比留)씨가 파견되어 쓰시마를 통치했다. 그러나 일본의 정권 교체(가마쿠라 막부)에 따라 1196년에 코레무네(惟宗重尙)가 재청관인으로 새롭게 파견되었는데, 1245년 코레무네는 아비류 집안을 토벌하고 쓰시마를 통치하게 되었다. 코레무네는 소(宗)씨의 시작으로 보인다. 이 당시 소씨는 규슈의 쇼니(小貳)씨를 주군으로 했다. 이후 쇼니는 규슈에서 패해서 쓰시마로 이전하기도 했으나, 1477년에는 주군 관계가 청산되었다(永留久惠, 2014, 2권:124).

표 3. 쓰시마시의 6개 마치(町)별 인구수(2010년 기준)

(단위: 명)

町別	이즈하라 (厳原町)	미쓰시마 (美津島町)	도요타마 (豊玉町)	미네 (峰町)	가미야카타 (上景町)	가미쓰시마 (上対馬町)	합계
인구수	12,684	7,841	3,746	2,296	3,505	4,335	34,407

자료 : 쓰시마시 홈페이지.

표 4. 일본의 시대 구분과 쓰시마 상황

일 본		쓰시마
시대	시기	
조몬(縄文) 시대	구석기 시대(BC 3세기 이전)	용기문 토기
야요이(彌生) 시대	신석기 시대(BC 3세기~300)	무늬없는 토기
고분(古墳) 시대 (위치 : 나라현)	300~538(야마토 정권) 불교 전래	
아스카(飛鳥) 시대 (위치 : 나라현)	538~710 642년 다이카 개신(日本) 701년 율령제정	가네다성(金田城) 축조(667) 國府설치(701) 對馬國에서 對馬島로(701)
나라(奈良) 시대 (위치 : 나라현)	710~794 일본서기(720), 만요슈(759)	
헤이안(平安) 시대 (위치 : 교토)	794~1185	아비류 지배 시작(9세기 후반)
가마쿠라(鎌倉) 시대 (위치 : 가나가와현)	1185~1336	소씨 지배(1245) 시작 원의 침입(1274, 1281)
무로마치(室町) 시대 (위치 : 교토)	1336~1573 (아시카가 足利)	1389년 고려 박위 정벌 1408년 사카로 중심지 이전 1419년 이종무 정벌 1468년 이즈하라로 이전
- 남북조 시대	1336~1392	
- 전국 시대	1467~1573	
아즈치 모모야마(安土桃山) 시대 (위치 : 오사카)	1573~1603	1588년 막부 번주 편입 임진왜란(1592) 정유재란(1597)
- 오다 정권	1573~1583	
- 도요토미 정권	1585~1603	
에도(江戸)시대 (위치 : 도쿄)	1603~1868(德川時代)	조선통신사 파견 (1607~1811, 총 12회)

이와 같이 쓰시마는 663년 백제부흥운동과 관련된 백강 전투 이후 중앙 정부에서 관리(國司)가 파견되기 시작했고, 9세기 후반부터 1245년까지는 아비류 집안(약 400년간), 1245년 이후 1869년까지는 소씨 집안이 통치했다(약 600년간). 즉, 일본의 헤이안 시대(794~1185)에는 아비류 집안이, 이후 에도 시대(1603~1868)까지는 소씨 집안이 쓰시마를 통치해 왔다.

2) 원의 침입과 쓰시마(1274, 1281)

원과 고려 연합군의 일본 침입은 1274년과 1281년의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연합군은 쓰시마에 먼저 상륙하였고, 이키(壹岐)섬을 거쳐 다이자후가 있는 후쿠오카로 진격했다.

1274년 1차 원정 때(10월 3일~11월 27일) 원과 고려 연합군(4만 명, 900척)의 진로는, 합포(마산, 10.3) → 견내량(거제도~통영 사이) → 쓰시마의 사스우라(佐須浦,

후에 고모다 小茂田로 지명이 바뀜) 도착(10.5) → 고모다(小茂田) 전투(10.6) → 섬 공략 → 이키섬 공격(10.14) → 하카타(博多)만 도착(10.19) → 폭풍우(11.5) → 합포로 회군(11.27)하였다(정진술, 2009:453).

1차 원정 때 연합군은 10월 5일 쓰시마 남서부의 사스우라에 도착하였고, 13일까지 9일 동안 쓰시마에 머물렀다²⁾. 1차 원정 때에 도주했던 스게쿠니는 국부(國府)에서 경보를 받고, 무사 80명을 이끌고 사스 고개를 넘어 아침에 사스우라에 도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豊玉町誌, 1992:89). 밤사이 이동하여 아침에 전투를 한 것으로 보면 이즈하라(嚴原) 또는 계치(鷄知)에 주둔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즈하라에서 사스우라까지는 약 10km의 거리이다. 이 전투에서 1대 도주했던 스게쿠니(資國)와 그의 차남이 사망했는데, 이 전투의 공헌으로 소씨 집안의 쓰시마 지배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永留久恵, 2014, 2권:30).

1281년 원의 2차 원정³⁾에서 원과 고려 연합군은 동로군(합포 출발, 900척, 4만명)과 강남군(중국 강남 출발, 3500척, 10만명)으로 편성하여, 6월 15일 이키섬에서 합류하는 작전이었다. 이 중 동로군은 합포에서 출발하여, 5월 21일 쓰시마 세계촌(世界村)의 대명포에서 일본군과 첫 전투를 벌였다. 이 후 동로군은 5월 22일에 이키섬을 공격하였고, 6월 6일에는 하카타만에 진입하였다(정진술, 2009:471).

당시 세계촌의 대명포의 위치는 분명하지 않으나, 세계촌이 사카(佐賀)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柏田二郎, 1958: 29). 만일 당시 세계촌으로 기록된 곳이 사카였다면, 1차 원정 때는 쓰시마의 남서부에 상륙했으나, 2차 원정 때는 쓰시마 섬의 북쪽을 거쳐 사카에 도착하고 바로 이키섬으로 출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永留久惠, 2014, 2권:26).

1차 원정 때 연합군은 9일 동안 쓰시마에 머물렀으나, 2차 원정 때는 바로 다음 날 이키섬으로 출정하였다. 따라서 쓰시마의 피해는 2차 때 보다는 1차 때가 더 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후 원나라의 세조가 사망하고(1294), 일본에서는 남북조시대(1336~1392)의 혼란기가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연합군의 원정 실패로 고려나 원나라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일본 국내의 혼란으로 인하여 왜구가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정진술, 2009:481).

3) 왜구 정벌과 쓰시마(1389, 1419)

왜구는 고려말에서 조선 초기 우리나라와 중국 연안에서 약탈행위를 했던 일본인 해적 집단이다. 왜구는 13세기의 왜구, 경인년(1350) 이후의 왜구(1350~1389), 조선시대 왜구의 3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정진술, 2009, 482). 이 중 가장 극심했던 시기는 경인년(1350) 이후의 왜구인데, 이 시기 일본은 남북조 시대(1336~1392)였으며, 대마도주는 4대 츠네시게(宗經茂)와 5대 스미시게(宗澄茂) 시기였다.

왜구는 1223년에서 1323년까지 100여년 간 11회의 침입이 있었으며, 특히 원과 고려의 일본원정 이후(128년) 1350년 이전까지는 단 2차례의 침입이 있었다. 그러나 1350년(경인년)부터 1389년 박위의 대마도 정벌 때까지 왜구의 침입이 가장 활발하였는데, 고려 공민왕(1351~1374)의 재위 동안 115회의 침입이 있었고, 고려 우왕(1374~1388) 시기에는 378회의 왜구 침입이 있어서 천도론까지 고려할 정도였다. 이 당시 왜구의 주요 목표는 조운선과 조창을 약탈하여 미곡을 얻는 것이었다.

이에 고려는 수군을 강화하고 함선에 최무선이 개발한 화포를 장착하여, 1380년 8월 진포해전(금강하구, 현재의 군산 앞바다)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같은 해 9월에는 운봉(남원)에서 이성계의 황산대첩이 있었다. 1389년(창왕 2년) 2월에는 박위(朴葦)가 병선 1백 척을 이끌고 쓰시마섬을 공격하였고, 이 후 왜구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1418년 쓰시마에 큰 흉년이 들었고, 왜구를 통제하던 7대 도주 사다시게(宗貞茂, 1394~1418)가 사망하면서, 왜구가 크게 일어났다. 이에 조선은 1419년(세종 1년) 이종무를 삼군 도체찰사로 삼고, 병선 227척과 병사 17,000명을 거느리고 출병하도록 명하였다(己亥東征). 이종무군은 6월 19일 거제도 남쪽 주원방포를 출발하여 20일 오시(午時)에 쓰시마의 두지포(豆知浦)⁴⁾에 도착하였다(김화홍, 1999:243). 이종무는 도주인 사다모리(宗貞盛)에게 항복을 권하였으나 대답이 없자, 아소만 안쪽에 위치하는 고후나고시까지 진격하였으나, 누카타케(糠嶽)⁵⁾ 전투 후 7월 3일 13일 만에 철수하였다(박현모, 2007:18).

4) 쓰시마 도주에서 막부 번주로

일본 본토의 새로운 지배자가 된 도요토미(豊臣秀吉)에 의해, 1588년 요시토시(宗義智)는 쓰시마의 도주(島主)가 아닌 막부(幕府)의 번주(藩主)가 되어 16대인 요시아키라(宗義達, 1869년 도쿄로 이주)까지 이어진다. 요시토시는 이즈하라에 시미즈산성(清水山城)을 구축하고(1591), 고니시(小西行長)의 사위가 되어, 5,000여명의 군사로 1군이었던 고니시군의 일원으로 임진왜란에 참여하였다.

1868년 메이지(明治) 유신에 의해 막부가 폐지되면서 1245년부터 시작되었던 도주(18대)와 막부 번주(16대)로 이어져 오던 소씨 집안의 쓰시마 지배는 끝나게 된다(1245~1869, 624년간)(표 5).

2. 쓰시마에서의 중심지 이동

1) 사카(佐賀) 시기 이전(667~1408)의 중심지 변화

(1) 소(宗)씨 지배 이전 시기(667~1245)

여기에서는 1245년을 기준으로 소씨 지배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로 세분하여 살펴본다.

쓰시마가 일본 본토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놓이게 된

표 5. 쓰시마 소씨의 도주 및 번주

도주(18대)	집권시기	번주(16대)	집권시기
1. 스게쿠니(資國)	1262~1274	1. 요시토시(義智)	1588~1615
2. 우마다로우(右馬太郎)	1274~1302	2. 요시나리(義成)	1615~1657
3. 모리쿠니(盛國)	1302~1349	3. 요시자네(義眞)	1657~1692
4. 츠네시게(經茂)	1349~1376	4. 요시쓰구(義倫)	1692~1694
5. 스미시게(澄茂)	1376~1392	5. 요시미치(義方)	1694~1718
6. 요리시게(賴茂)	1392~1402	6. 요시노부(義誠)	1718~1730
7. 사다시게(貞茂)	1402~1418	7. 미치히로(方熙)	1730~1732
8. 사다모리(貞盛)	1418~1452	8. 요시유키(義如)	1732~1752
9. 시게모토(成職)	1452~1468	9. 요시아리(義蕃)	1752~1762
10. 사다쿠니(貞國)	1468~1492	10. 요시나가(義暢)	1762~1778
11. 키모리(材盛)	1492~1505	11. 요시가쓰(義功, 형)	1778~1785
12. 요시모리(義盛)	1505~1520	12. 요시가쓰(義功, 동생)	1785~1812
13. 모리나가(盛長)	1520~1526	13. 요시카타(義質)	1812~1838
14. 마사모리(將盛)	1526~1539	14. 요시아야(義章)	1838~1841
15. 하루야스(晴康)	1539~1553	15. 요시노리(義和)	1841~1862
16. 요시시게(義調)	1553~1566	16. 요시아키라(義達)	1862~1869
17. 시게나오(茂尚)	1566~1576		
18. 요시쓰미(義純)	1576~1588		

시점은 663년 백촌강 전투 패배 이후 쓰시마(對馬), 이키(壹岐), 북규슈(筑紫國) 등에 방어군과 봉화를 배치하면서 서부터이다(永留久惠, 2014, 1권:236). 그리고 667년에 백제식 산성인 가네다성(金田城)을 축조하고 중앙에서 관리(國司)를 파견하게 된다. 이 관리가 집무를 시작한 곳은 가네다 성의 남쪽에 위치하는 게치(鷓知)였다. 산성과 도성의 관계였으며,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근무하는 곳을 국부(國府)라고 했는데, 게치는 쓰시마 최초의 국부가 되었다(永留久惠, 2014, 1권:272). 게치는 동쪽은 동해안과 연결되고, 북부는 서해와 연결되는 아소만에 면해 있어서, 동해안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중간지점에 해당된다(그림 3).

그러나 게치는 동부의 다카하마(高浜)의 수심이 얕아서 진(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여, 다이자와와의 교통이 더 원활하고 배의 선착이 편리한 요라(與良, 현재의 이즈하라 嚴原)로 국부를 이전하게 된다(701). 당시 쓰시마의 지방 체제는 상현(上縣)과 하현(下縣)의 2현 체제였는데, 상현의 중심지는 사고(佐護, 현재 上縣町), 하현의 중심지는 쓰쓰(豆酲, 현재 嚴原町)였다(永留久惠, 2014, 1권:277).



그림 3. 쓰시마에서의 중심지 이동

701년 울령이 제정되면서 쓰시마는 대마국(對馬國)에서 대마도(對馬島)로 격하되었으며, 715년에는 50호를 1개의 향(鄉)으로 하는 향리제(鄉里制)가 실시되면서, 쓰시마는 12개의 향으로 재편되었다(永留久惠, 2014, 1권:287). 그리고 855년에는 도분사(島分寺, 현재 쓰시마 시청 뒤)가 건립되었다. 그러나 857년 쓰시마의 지방세력이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를 공격하는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때 도분사가 불에 탔다.

이후 무사(武士) 집안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중 하나가 아비류 집안으로 추정된다(永留久惠, 2014, 1권:373). 헤이안 시대에 국부(國府)의 재청관인이었던 아비류 집안은 9세기 후반부터 쓰시마를 지배했다. 그러나 쓰시마에서 반란이 일어났던 857년부터 1245년 코레무네에게 패할 때까지 아비류 집안의 집무소가 있었던 곳은 명확하지 않다. 857년 반란 이후 계속 이즈하라에 집무소가 있었을 가능성과 아비류 집안의 세력이 많이 남아 있는(永留久惠, 2014, 2권:34), 계치에 집무소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1196년에 쓰시마의 재청관으로 파견된 코레무네는 1245년 아비류 집안에서 일어난 반란을 평정하고 쓰시마를 지배하였으며, 그 후손들이 소씨이다. 이 당시 코레무네는 다이자후에 있으면서 쓰시마를 지배하고 있던 쇼니의 대리(代理)로 파견된 관리였다(永留久惠, 2014, 2권:17).

아비류 집안은 백제계라는 추정도 있지만(이훈, 2005:44) 명확하지는 않다. 아비류 집안의 통치 시기는 일본의 헤이안(平安, 794~1185) 시대에 해당하며, 코레무네가 파견된 1196년은 가마쿠라(鎌倉, 1185~1336) 막부시기에 해당한다. 아비류 집안과 새로 파견된 코레무네가 쓰시마에 동시에 있었던 시기는 1196년부터 1245년까지 약 50여 년 동안이다. 결국 쓰시마의 지배세력이 아비류 집안에서 소씨 집안으로 교체된 것은 일본 내의 정권 교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표 6).

(2) 소(宗)씨 지배 이후 시기(1245~1408)

1245년 쓰시마를 지배하게 된 코레무네는 규슈의 쇼니의 대관(代官)이었다. 이후 소씨 집안의 1대가 되는 스게쿠니는 1274년의 1차 원의 침입 때에 고모다(小茂田) 전투에서 사망한다. 이후 3대 모리쿠니 때에 소씨 집안은 관직의 변화(地頭代에서 地頭로)와 함께 쓰시마의 지배를 확고히 하고, 과거의 지배세력인 아비류 집안은 신사(神社)와 같은 종교 시설의 지도자로서만 존재하게 된다(永留久惠, 2014, 2권:34). 지방행정체제도 아비류 시기의 12향 체제에서 8군 체제로 재정비되었다. 1245년 코레무네가 쓰시마의 지배권을 갖게 된 이후부터 1349년 니이(仁位)로 집무소를 이전하기까지 집무소로 이용하였던 중심지는 이즈하라(당시는 요라) 또는 미네(三根)로 추정된다.

이후 4대 도주가 된 츠네시게는 규슈에서 무공을 세워 규슈의 히젠(肥前), 치쿠젠(筑前), 부젠(豊前) 등지에 영지를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츠네시게는 쓰시마의 지두(地頭)이면서 치쿠젠(筑前)의 수호대(守護代)가 되어 규슈에 머물게 되고, 대신 츠네시게의 동생인 소고(宗香)에게 대리 통치를 맡겼다(永留久惠, 2014, 2권:39). 동생 소고(宗香)는 대관(代官)으로서 통치하면서, 집무소를 니이에 설치하였다(현재 豊玉町 현립 豊田高校 일대). 소고(宗香)가 대리 통치를 한 1349년부터 7대 도주 사다시게에 의해 도주권이 바뀌는 1398년까지 50여 년간 집무소는 니이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에 왜구의 침입이 가장 많았던 시기에 해당한다(1350~1389).

니이에 집무소가 있었던 기간 동안에는, 1389년에 고려의 박위에 의한 쓰시마 정벌이 있었으며, 일본에서는 남북조의 혼란이 끝나고 무로마치(室町) 시대가 시작되었다(永留久惠, 2014, 2권:77). 1398년 7대 도주가 되는 사다시게는 니이 집안으로 이어져 갔던(5대~6대) 도주권(島主權)을 다시 되찾고, 1401년에 니이 집안의 카모(賀茂, 宗香의 차남)에 의해 일어난 반란을 토벌하였다. 이후 사다시게는 규슈 치쿠젠의 수호대(守護代)를 동생

표 6. 아비류(阿比留) 지배 시기(9세기 후반~1245) 주변 정세

쓰시마	일본	한국
857년 반란 발생, 아비류 지배		
1019년 여진족 침입	헤이안(平安) 시대(794~1185)	통일신라(668~935)
1196년 코레무네 재청관 파견		
1245년 소(宗)씨 지배 시작	가마쿠라(鎌倉) 시대(1185~1336)	고려(918~1392)

표 7. 소씨 집권 후 사카(佐賀) 이전(1245~1408)의 주변 정세

쓰시마	일본	한국	중국
소씨 1대~7대 1274년(1차 침입) 1281년(2차 침입) 1389년(박위 토벌) 1396년(김사형 정벌)	가마쿠라 막부(1192~1336) 무로마치 막부(1336~1573) - 남북조시대(1336~1392) - 전국시대(1467~1573)	고려시대(918~1392) 1377년 정몽주 일본 파견 1389년 박위 대마도 토벌 1396년 김사형의 정벌	원나라(1206~1368) - 1274년 1차 원정 - 1281년 2차 원정 명나라(1368~1644)

표 8. 사카(佐賀)로 이전하기 전 소씨 지배 시기(1245~1408)의 주요 사항

순서	대마도주	집권시기	주요 사건
	코레무네 (惟宗重尙)	1245~1262	1196년 재청관으로 파견(쇼니의 代官) 1245년 대마도주가 됨, 가마쿠라(鎌倉) 막부 시기(1185~1336)
1대	스게쿠니 (宗資國)	1262~1274	1274년 원의 1차 침입, 고모다(小茂田) 전투에서 사망
2대	우마다로우 (右馬太郎)	1274~1302	1281년 원의 2차 침입
3대	모리쿠니 (宗盛國)	1302~1349	소(宗)씨 실권 장악(아비류에서 소씨로) 在廳 지배에서 地頭 지배로 변화(지방은 郷에서 郡으로)
4대	츠네시게 (宗經茂)	1349~1376	무로마치(室町) 막부의 아시카가(足利)에게 공로를 인정받음 동생(宗香)에게 대리 통치 맡김, 니이(仁位)에 집무소 설치
5대	스미시게 (宗澄茂)	1376~1392	宗香의 아들(仁位계통) 1377년 정몽주 사신 파견, 1389년 박위 쓰시마 정벌
6대	요리시게 (宗賴茂)	1392~1402	스미시게(宗澄茂)의 아들(仁位계통)
7대	사다시게 (宗貞茂)	1402~1418	1398년 島主 회복, 1401년 카모(賀茂)의 반란 진압 강력한 왜구 금지 조치, 조선과 교류 증가 1408년 사카(佐賀)로 이전

* 永留久惠(2014)의 분류에 따름.

에게 맡기고 쓰시마로 이주하여 직접통치를 시작했으며, 1408년에는 집무소를 사카(佐賀)로 이전하였다(1408~1468)(永留久惠, 2014, 2권:82). 사다시게는 왜구를 통제하고 교린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선과의 관계가 안정되었다(표 7, 8).

(3) 사카(佐賀) 시기(1408~1468)

사카는 니이에서 동북쪽으로 약 10km의 거리에 위치하는데, 사카는 7대~9대 대마도주가 정착한 이후 많은 무사와 상인들이 몰려들어 무로마치(1336~1573) 시대 쓰시마 통치의 중심지로 번창하였다.

사카 시기에는 1419년 이종무의 원정(己亥東征)이 있었으며, 1426년에는 내이포(乃而浦, 진해)와 부산포 이외에 염포(鹽浦, 울산)를 추가로 개항하고 교역을 허락

하였다(三浦開港). 또한 1438년에는 대마도주에게 도항 증명서(文引) 발급권한을 부여하였는데, 사카 남부에 위치하는 바이린지(梅林寺)에서 업무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1443년에는 세견선 파견을 허락하는 계해조약이 체결되었다.

원의 2차례에 걸친 원정에서는 쓰시마와 이키섬을 거쳐 하카타(현 후쿠오카)의 다이자후를 공격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고려나 조선에 의해 이루어진 정벌은 왜구 정벌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왜구가 활거하고 있던 아소만(淺茅灣)이 주요 공격 목표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카의 엔츠지(圓通寺)는 60여 년간 통치 관청으로 사용되었고, 고려시대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과 조선 초기로 추정되는 범종이 있다. 또한 조선시대

표 9. 사카(佐賀) 시기(1408~1468)의 주요 사항

순서	대마도주	통치시기	주요 사건
7대	사다시게 (宗貞茂)	1402~1418	1408년 니이(仁位)에서 사카(佐賀)로 이전 1418년 쓰시마 대흥년, 1418년 4월 사망 후 왜구 증가
8대	사다모리 (宗貞盛)	1418~1452	1419년 6월 이종무 정벌(己亥東征) 1420년 송희경 파견(노송당 일본행록) 1426년 삼포개방, 조선 통신사 파견(1428년, 1439년) 1433년 쇼니 쓰시마 망명(三根의 中村 거주) 1438년 도항증명서 발급 권한 부여 1443년 신숙주 일본 사신 파견, 계해약정(癸亥約定)
9대	시게모토 (宗成職)	1452~1468	토요사키(豊岐)의 군수였던 사다쿠니에게 도주 이양
10대	사다쿠니 (宗貞國)	1468~1492	1468년 이즈하라(嚴原)의 중촌(中村)으로 이전

표 10. 사카(佐賀) 시기(1408년~1468년)의 주변 정세

쓰시마	일본	한국
1419년 이종무 정벌 1426년 삼포개방 1438년 도항증명서 발급 1433년 주군 쇼니 이주 1443년 계해조약	무로마치 막부(1336~1573) - 남북조(1336~1392) - 전국시대(1467~1573)	조선(1392~1910) 1419년 이종무 정벌 1426년 삼포개항 1438년 도항증명서 발급 권한 부여 1443년 신숙주 사신, 계해조약

통신사 및 사절단으로 활약한 이예(李藝, 1373~1445, 14차례 일본 방문)의 공적비가 있다(2005년 건립). 그리고 남쪽의 바이린지는 538년 백제 때에 불상과 경전을 가져와 절을 지었다고 전해오며, 부근에는 아소만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니시노코키타테(西の漕手, 폭 160m)가 있다.

1443년에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된 신숙주(1417~1475)는 1471년에 해동제국기를 저술하였는데, 신숙주가 거쳐 갔던 1443년 쓰시마의 중심지는 사카였다. 당시에 쓰시마는 8군 82포가 있었다(신숙주, 1471:129). 1433년에는 주군이었던 쇼니가 규슈에서 패하여 쓰시마로 들어와서 미네의 중촌(中村)에 머무르면서 규슈 영지의 회복을 시도하였다(峯町誌, 1993).

사카가 중심지로서 역할을 한 것은 소씨 집권기간 624년(1245~1869) 중에서 불과 60여 년에 불과한 짧은 시기였다. 그러나 사카는 쓰시마의 중심지가 서부의 니이에서 남쪽의 이즈하라로 이동하게 되는 방향 전환의 기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서해안에서 동해안으로 그리고 조선과의 교류가 주로 이루어지는 북부 지역에서 일본 본토와의 교류가 편리한 남쪽으로는 중심지 이동의 전환점에 해당한다(표 9, 표 10).

(4) 이즈하라(嚴原) 시기(1468~1869)

1468년 사다쿠니(宗貞國)가 10대 대마도주가 되면서 사카에서 이즈하라로 중심지를 이전하였다. 사다쿠니는 부친이 1444년 규슈의 전투에서 전사하여 규슈 본토 회복의 의지가 강했고, 이것이 이즈하라로의 중심지 이동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永留久惠, 2014, 2권:123). 사다쿠니는 1469년부터 1477년까지 계속된 전란에서(전국시대, 1467년~1573년) 쇼니와 함께 출전하여 승리하였으나, 이후 사이가 나빠져 1477년에는 쇼니와 결별하게 된다.

이즈하라로 중심지를 옮긴 사다쿠니는 1478년에 857년 반란으로 불타던 도분사(島分寺)를 국분사(國分寺)로 개칭하여 부활시켰다. 해동제국기(신숙주, 1471)에서는 당시 사카는 500여호, 이즈하라는 100여호로 기록하고 있다. 이 당시 집무소는 이즈하라의 중촌(中村, 현재의 경찰서 일대)이었다(小島武博, 2014:69). 1526년에는 14대 도주(宗將盛)가 집무소를 이즈하라 시내의 이케노지(池の地)로 이전했으나, 반란으로 이케노지가 불에 타고 1528년 가네이시(金石)로 집무소를 이전하게 된다(永留久惠, 2014, 2권:143).

표 11. 이즈하라(嚴原) 시기(1468~1869)의 주요 사항

순서	통치 시기	주요 사건
대마도주 10~18대	1468~1588	1468년 이즈하라(嚴原)로 중심지 이전(中村) 1469년 치쿠젠(筑前)과 히젠(肥前) 회복(1477년 소니와 결별) 1510년 삼포왜란, 조선과 통교 단절 1512년 임신조약, 조선과 무역 부활(일부) 1526년 부성을 이케노지(池の地)로 이전 1528년 가네이시(金石)로 이전
막부번주 1~16대	1588~1869	1592년 임진왜란(清水山城 수축), 1597년 정유재란 1607년~1811년 : 조선통신사(12회) 1650년 은산 발견 1659년 겨울 이즈하라 대화재(새로운 도시계획 수립) 1672년 오후나고시(大船越) 건설 1678년 사지키하라(棧原)로 집무소 이전 1868년 메이지 유신

표 12. 이즈하라(嚴原) 시기(1468~1869)의 주변 정세

쓰시마	일본	한국
1588년 막부 편입 1592년 임진왜란 1597년 정유재란 1650년 은산 발견 1659년 겨울 이즈하라 대화재 1672년 오후나고시 大船越 건설 1607~1811 조선통신사(12회)	무로마치 막부(1336~1573) - 남북조(1336~1392) - 전국시대(1467~1573) 도요토미 히데요시(1585~1603) 도쿠가와 막부(1603~1868) 메이지 유신(1868)	1510년 삼포왜란 1512년 임신조약 1555년 을묘왜변 1592년 임진왜란 1597년 정유재란 1636년 정묘호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즈하라로 중심지를 이동한 이후에도 초기에는 조선과의 관계는 우호적이었으나, 1510년 삼포왜란으로 조선과의 교역이 단절되었다가, 1512년 임신조약에 의해서 일부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1555년 을묘왜변, 1592년 임진왜란 및 1597년 정유재란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에도시대에는 12번의 조선통신사 파견 때(1607년~1811년)에 대마번주는 조선에서 파견한 통신사 일행을 에도(江戸)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

이즈하라에서 10대 대마도주인 사다쿠니(宗貞國)부터 18대 요시쓰미(宗義純)까지 이어지다가, 요시토시(宗義智) 부터는 막부의 번주⁶⁾가 되어 16대 요시아키라(宗義達)까지 이어진다.

1588년 1대 막부 번주가 된 요시토시는 1590년 고니시(小西行長, 1555~1600)의 사위가 되었으며, 1591년에는 이즈하라에 시미즈산성(清水山城)을 구축하였다. 시미즈 산성은 임진왜란 때 조선 침략을 위한 기지로 건설된 것인데, 당시 조선 침략의 본부인 규슈(현재 사가현)의 히젠(肥前) 나고야성(名護屋城), 이키섬의 카즈모토성

(勝本城)과 함께 부산으로 연결되는 역성(驛城)으로 건설되었다(이훈, 2005:198). 또한 요시토시는 1군이었던 고니시 군의 일원으로 임진왜란에 참여하였다.

1659년에 이즈하라에 대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새로운 도시 계획이 수립되어 수해방지를 위한 아쓰가와(阿須川) 굴착공사, 대로 건설(馬長筋), 집무소의 건축, 항구 축조 등이 이루어져 현재 이즈하라의 도시 구조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1672년에는 오후나고시(大船越)를 건설하여 아소만과 동해안을 연결하였으며⁷⁾, 1678년에는 집무소를 가네이시(金石)에서 사지키하라(棧原)로 이전하였다(표 11, 표 12).

IV. 쓰시마에서 중심지 이동 원인

본 연구에서는 쓰시마 내에서의 중심지 이동을 중앙에서 관리(國司)가 파견되기 시작한 667년(金田城 축성)부터 1408년 사카(佐賀)로 이전하기 전까지의 시기, 1408

표 13. 667년부터 1408년 사이 쓰시마의 중심지 이동

항목별	1기	2기	3기	4기	5기
시기별	667~701	701~857	857~1245	1245~1349	1349~1398
지배세력	국사(國司)		아비류 집안	소씨 집안	소씨(니이계)
중심지	게치	요라(이즈하라)	요라 또는 게치(추정)	요라(추정)	니이
지방체제	2현 체제	12향 체제		8군 체제	

년부터 1468년까지의 사카(佐賀) 시기, 1468년부터 1869년까지의 이즈하라(嚴原) 시기의 3개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667년부터 1408년까지 쓰시마의 중심지는 다시 5개의 시기로 세분할 수 있는데(표 13), 667년부터 701년까지는 게치(鷓知)에 중앙 파견 관리의 집무소가 있었고, 701년 율령발표 이후 본토와의 연결과 항구 조건이 좋았던 요라(與良, 후에 이즈하라로 변경)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857년 반란 사건으로 이즈하라의 도분사가 불에 타고, 이 후 지배자가 된 아비류 집안 통치 시기의 중심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즈하라 또는 아비류의 세력이 많이 남아있는 게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1245년 소씨 집안이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의 집무소 역시 분명하지는 않으나, 이즈하라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1349년 4대 도주인 츠게시네가 동생에게 쓰시마 통치를 대신하게 하면서 1398년까지 니이(仁位)에 집무소(館)를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1408년 중심지를 사카(佐賀)로 옮기기 전까지 쓰시마의 중심지는 게치(鷓知) → 요라(與良, 이즈하라) → 게치(鷓知) → 요라(與良) → 니이(仁位)로 이동되었다. 이후 이즈하라(요라)는 1468년 다시 쓰시마의 중심지가 된다. 게치와 이즈하라는 아소만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즈하라는 동해안에만 면해 있지만, 게치는 동해와 서해의 아소만을 연결하는 중간 지역에 위치한다. 그리고 니이는 아소만의 북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서해에 면해 있다.

그리고 지방체제는 상현과 하현의 2현 체제에서 50호 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12향 체제, 그리고 8군 체제로의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지방체제의 변화는 지배세력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7대 도주인 사다시게는 1398년 니이가(仁位家)에 빼앗겼던 도주권(島主權)을 되찾고, 1401년 니이가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고 본인이 직접 쓰시마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408년 중심지를 사카로 이전한다. 그

중간 시기인 1398년부터 1408년 사이의 집무소는 분명하지 않으나, 사다시게의 부친이 머물렀던 사카 북쪽으로 약 3km 지역에 위치하는 시타카(志多賀)였을 가능성이 높다.

사카는 니이에서 북동쪽으로 약 10km의 거리이지만, 남북으로 길고 동서의 폭이 좁은 쓰시마의 지형 특성상 서해안에서 동해안으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당시에 아소만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니시노코키테는 운하는 아니었고 폭 160m의 육지를 넘어야 하는 상태였다. 따라서 서해안과 동해안의 선박이동은 어려웠다.

사카 시기(1408~1468)에는 1419년 이종무의 왜구 정벌이 있었으며(기해동정), 1438년에는 사카에서 조선의 도향증명서(文引) 발급 권한이 주어졌는데, 이 업무는 사카 남부의 바이린지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1433년에는 주군인 쇼니가 본토에서 패하여 쓰시마로 피해왔는데, 이 때 미네의 중촌에 머물게 한다. 따라서 당시에 미네 역시 중요한 거점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카 시기에 조선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교류가 증진되었던 것은 도주의 직접통치에 의한 왜구의 통제권 확보와 함께 조선과의 교통이 이루어졌던 북부 지역(현재의 上縣町, 上對馬町)에 위치했던 점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468년 10대 대마도주인 사다쿠니는 이즈하라로 중심지를 이전하는데, 이즈하라는 사카보다 약 35km 남쪽에 위치하여, 일본 본토와의 연결이 용이하였고, 사다쿠니의 과거 영지 회복에 대한 의지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永留久惠, 2014, 2권:124).

이즈하라(1468~1869) 시기에 일본 본토에서는 무로마치 막부(1336~1573), 아즈치 모모야마(安土桃山) 시대(1573~1603), 도쿠가와 막부(1603~1868) 그리고 메이지 유신(1868)의 시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조선 시대에 해당한다(1392~1910). 조선과는 삼포왜변, 을묘왜변, 임진왜란, 정유재란 등의 적대적인 사건이 있었

표 14. 이즈하라 시내에서 중심지의 이동상황

나카무라 (中村)	이케노지 (池の地屋形)	가네이시 (金石)	사지키하라 (棧原)
1468~1526(58년간)	1526~1527(2년간)	1528~1678(150년간)	1678~1869(191년간)

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에 있었던 조선통신사 파견 때는 대마도주가 에도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 즉, 이즈하라 시기 초기에는 조선과 적대관계였으나, 이후에는 교류관계를 유지하면서 쓰시마는 다시 조선과 일본 본토의 중계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결국 사카 시기는 한반도 쪽과의 관계가 안정된 시기였고, 이즈하라 시기에는 적대적인 관계 후에 다시 교류의 시기를 맞이했다.

1659년에는 이즈하라에 대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이후 도시 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672년에는 오후나고시(大船越)를 건설하여 처음으로 선박이 아소만과 동해안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868년 메이지(明治) 유신 이후에는 나가사키 현에 속하게 되었다.

이즈하라 시내에서도 몇 차례의 중심지 이동이 있었다. 먼저 초기에는 도분사가 있었던 지역(701~857)이 중심 지역이었으나, 1468년 다시 이즈하라로 중심지를 이전한 이후에는 나카무라(中村) → 이케노지(池の地) → 가네이시(金石) → 사지키하라(棧原)까지, 이즈하라 시내에서의 중심지 이동이 4차례 있었다(표 14, 그림 4).

이와 같이 쓰시마는 667년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되고 1869년 중앙에 편입될 때까지 약 1200여 년 동안 게치 → 이즈하라(당시는 요라) → 니이 → 사카 → 그리고 다시 이즈하라로의 중심지 변화가 있었다. 이 중 한반도와의 교류가 이루어졌던 북부 지역과 서해안 지역에 위치했던 지역은 게치, 니이 그리고 사카였다. 아소만을 경계로 니이와 사카는 북쪽 지역이고, 게치와 이즈하라는 남



그림 4. 이즈하라 시내에서의 중심지 이동

* 기본도 : 小島武博, 2014.

쪽에 위치한다(표 15).

표 15. 쓰시마에서의 중심지 이동

연도별	중심지	지배세력
667~701	게치(鷓知)	중앙 파견 관리
701~857	요라(與良, 이즈하라)	
857~1245	요라 또는 게치(추정)	
1245~1349	요라(與良) (추정)	아비류(阿比留) 집안
1349~1398	니이(仁位)	
1398~1408	시타카(志多賀) (추정)	
1408~1468	사카(佐賀)	
1468~1869	이즈하라(嚴原)(中村, 池の地, 金石, 棧原)	

쓰시마에서 있었던 중심지 이동은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의 집무소, 쓰시마 내부에서의 지배세력 변화, 일본 본토의 정권 교체에 따른 영향, 규슈에 주재하던 주군과의 관계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즈하라라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쓰시마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즈하라는 한반도 보다는 일본 본토와의 교류가 편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즈하라에 중심지가 있었던 시기는 한반도와의 관계 보다는 일본 본토와의 관계가 더 중요했던 기간으로 볼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쓰시마에서의 중심지 이동을 667년부터 1408년까지, 1408년부터 1468년까지, 1468년부터 1869년까지의 3개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에서 관리(國司)가 파견되기 시작한 667년 이후 초기에는 가네다 성과 가까운 게치(鷄知)가 중심지 역할을 하다가, 701년 이후 이즈하라(嚴原)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857년 반란으로 인하여 이즈하라가 파괴된 이후, 아비류(阿比留) 집안의 통치 중심지는 불분명하지만 게치 또는 이즈하라로 추정된다. 그리고 소(宗)씨가 지배권을 획득한 1245년부터 1349년 니이(仁位)에 집무소를 설치할 때까지 중심지는 이즈하라로 추정된다.

둘째, 1245년 소씨가 지배세력이 된 이후 5차례의 중심지 이동이 있었다. 1245년부터 1349년까지는 이즈하라, 1349년부터 1398년까지는 니이(仁位), 1398년부터 1408년까지는 시타카(志多賀), 1408년부터 1468년까지는 사카(佐賀) 그리고 1468년부터 1869년까지는 다시 이즈하라이다. 전체적인 경향은 남쪽(이즈하라)에서 북서쪽(니이)으로, 그리고 동북쪽(시타카), 다시 남쪽(이즈하라)으로의 이동이었다.

셋째, 사카 시기(1408-1468, 61년간)에는 1419년 이종무의 정벌, 1433년 소니(小貳)의 이주, 1426년 삼포개항, 1438년 도항증명서 발급 권한 부여, 1443년 계해조약 등이 있었다. 일본 내부적으로는 무로마치 막부(1336~1573) 시기였으며, 사카는 북쪽에 위치해 있어서 이즈하라보다 조선과의 교류가 편리한 지점이었다.

넷째, 이즈하라 시기(1468-1869, 402년간)에는 주군인 쇼니와의 관계가 끊어졌고(1477), 규슈의 영지를 회복했다. 1588년에는 막부의 번주로 편입되었으며, 시미즈산

성(清水山城)의 축성과 임진왜란 참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조선통신사가 방문할 때는 가장 먼저 도착하는 지역이 되었고, 에도(江戸)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섯째, 이즈하라 시내에서는 701년부터 857년 사이에는 도분사(島分寺)가 있던 지역이 중심지였으나, 1468년 이즈하라로 이동한 이후에는 나카무라(中村) → 이케노지(池の地) → 가네이시(金石) → 사지키하라(棧原)까지, 이즈하라 시내에서의 중심지 이동이 있었다. 게치, 니이, 사카 시기 이외의 기간에 쓰시마의 통치 중심지는 대부분 이즈하라였다.

쓰시마에서의 중심지 이동은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의 집무소와 쓰시마 내부에서의 지배세력 변화, 일본 본토의 정권 교체에 따른 영향, 규슈에 주재하던 주군과의 관계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쓰시마에서의 중심지 이동은 한반도와의 관계보다는 일본 본토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결과로 보이며, 이즈하라는 쓰시마의 중심지로서 오랜 기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감사의 글 : 쓰시마와 이키 답사의 동행을 허락해 주신 장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註

- 고대 일본에서 지방 행정상의 중요한 지역에 설치되어 몇 개의 쿠니(国)에 걸치는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 임무를 맡았던 일종의 지방행정장관이다.
- 일본에서는 ‘분에이노 에키(文永の役)’로 기록함.
- 일본에서는 ‘고안노 에키(弘安の役)’로 기록함.
- 현재의 오자키(尾崎)로 추정됨, 당시에 인구가 가장 많았다고 함.
- 토요타마마치(豊玉町)의 니이(仁位) 부근, 일본에서는 ‘오에이의 외구(應永の外寇)’로 기록함.
- 일본 에도(江戸) 시대의 300번(藩)의 하나.
- 이후 1900년에 전쟁에 대비하여 오후나고시(大船越)의 북쪽에 만제키(万關) 운하를 건설하고 만제키바시(万關橋, 철교 100m, 폭 5.5m, 높이 36m)를 만들었다. 이후 1956년에 아치형 철교(길이 81m, 폭 5.5m)로 다시 만들고, 1996년 현재의 만제키바시(길이 210m, 폭 10m)를 건설했다.

참고문헌

- 권동희, 2015, “관광자원으로서의 대마도 지질과 지형 경관,” 한국지형학회지, 22(2), 75-87.
- 김상보, 1999, “조선통신사 및 일본사신을 통해서 본 한일 간의 음식문화의 비교와, 대마도에서의 연회를 통해서 본 조선왕조의 수배상 과반 아가상 고,”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4(2), 115-129.
- 김일림, 2003, “대마도의 문화와 문화경관,” 한국사지리지학회지, 13, 91-103.
- 김화홍, 1999, 「대마도도 한국땅」, 지와사랑.
- 노성환, 2002, “대마도 천도신화에 관한 연구,” 일어일문학연구, 43(2), 317-336.
- 민덕기, 2011, “임진왜란기 대마도의 조선 교섭,” 동북아역사논총, 41, 97-135.
- 박계홍, 1975, “한일 민속의 비교고찰 -특히 한국의 부락제와 대마도의 민간집단신앙에 대하여-,” 백제연구, 6, 127-147.
- 박현모, 2007, 「세종실록 밖으로 행차하다」, 푸른역사.
- 신숙주, 1471, 「海東諸國紀」(신용호 등 주해, 2004, 범우고전선 57, 범우사).
- 신영근, 2008, “민·관의 활동에서 본 쓰시마시의 지역 활성화 정책: 아리랑 축제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3(6), 951-960.
- 오상학, 2009, “조선시대 지도에 표현된 대마도 인식의 변천,” 국토지리학회지, 43(2), 203-220.
- 이병선, 2000, “대마도에 있었던 백제 세력에 대하여 -백제군과 임나 건국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26(4), 2-24.
- 이영, 2008, “쓰시마 쓰즈 다구쓰다마 신사(多九頭魂神社) 소재 고려 청동제 반자(飯子)와 왜구,” 한국중세사연구, 25, 409-440.
- 이재훈, 2009, “대마도종가문서(對馬島宗家文書) 일기도(壹岐島)에서의 기록-기해사행(己亥使行)의 기록을 『해유록(海游錄)』과 비교하며,” 일어일문학연구, 68(2), 307-325.
- 이찬, 1992, “『海東諸國紀』의 일본 및 유구국지도,” 문화역사지리, 4, 1-8.
- 이훈, 2005, 「대마도, 역사를 따라 걷다」, 역사공간.
- 임동권, 1988, “대마도에 전파된 한문화 -천도신앙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21, 173-198.
- 정선자, 2012, “대마도 방문 한국인 관광객의 추구편익에 따른 시장세분화 연구,” 일본근대학 연구, 36, 395-412.
- 정영호, 1990, “일본 대마도의 한국불상 신례,” 역사교육논집, 13, 155-168.
- 정진술, 2009, 「한국해양사(고대편)」, 경인문화사.
- 주노중, 2014, “조선의 대마도통치 전략과 일본과의 평화외교의 전략 고찰,” 동북아경제연구, 26(4), 117-148.
- 조성욱, 2006, “지역 중심지의 역할 변화와 지리적 관성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 지역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5), 571-582.
- 한문중, 2011, “조선전기 한일관계와 對馬,” 동북아역사논총, 41, 61-96.
- 하지은, 2011, “쓰시마 朝鮮語通詞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의 생애와 대외인식 -『通譯酬酢』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0, 315-356.
- 홍성덕, 2011, “조선후기 한일외교 체제와 대마도의 역할,” 동북아역사논총, 41, 137-180.
- Toshio Yasutomi, 1993, “한·일 민속놀이의 비교: 쓰시마(對馬)의 배 경주,” 중앙민속학, 5, 117-123.
- 柏田二郎, 1958, 「蒙古襲來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 田阪正則, 2012, “雨森芳洲의 幼學指導 -對馬藩儒として, 祖父として-,” 일어일문학연구, 80(2), 255-273.
- 小島武博, 2014, 「對馬府中藩 ぶらり城下町散歩」, 交隣舎出版企劃.
- 永留久恵, 2014, 「對馬國志(1, 2, 3 卷)」, 交隣舎出版企劃.
- 峰町誌 編纂委員會, 平成 5年(1993), 「峰町誌」.
- 豊玉町誌 編纂委員會, 平成 4年(1992), 「豊玉町誌」.
- 쓰시마시 홈페이지, <http://www.city.tsushima.nagasaki.jp>
- 교신: 조성욱,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chossww@jbnu.ac.kr)
- Correspondence: Sungwook Cho, 54896,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 Jeonbuk,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chossww@jbnu.ac.kr)
- 투고일: 2016년 7월 11일
심사완료일: 2016년 7월 25일
투고확정일: 2016년 7월 26일

